

[한자성어 및 속담 수능기출]
- 문제 -

※ 아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8세기 독일의 동물학자 하이네만 박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동종 요법(同種療法)에서는 동양의 침술과 같이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에너지, 즉 생명력의 변화로부터 병이 생긴다고 본다. 동종 요법은 '유사성의 원리'라는 생물학적 법칙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한 증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치료하는 것이다.

(나) 한 예로 벨라도나*를 건강한 사람이 먹을 경우 열이 나거나 얼굴에 반점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심한 감기에 걸렸거나 햇빛에 피부가 심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벨라도나를 아주 조금만 먹으면 증상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피부병이 생겼을 때 벌침을 놓는다거나 신장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수은을 사용하는 민간요법도 사실은 동종 요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벨라도나 : 가지과의 다년초 식물

1. 윗글의 '동종 요법'의 원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 ③ 유유상종(類類相從) ④ 이열치열(以熱治熱)
 - ⑤ 초록동색(草綠同色)

자연의 이용이 도리어 재앙을 가져온 예들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있어왔다. 지중해 연안은 한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비롯해서 여러 문명이 발생했다 사라진 곳인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곳이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었는지 의심스럽다. 그 중에 에페소스는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시기에 번성했던 유명한 해양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서 대리석 기둥, 훌륭한 조각품의 잔재들만이 폐허로 변해 버린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에페소스의 문명이 갑자기 몰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2. ㉠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사필귀정(事必歸正) ② 상전벽해(桑田碧海)
 - ③ 새옹지마(塞翁之馬)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 ⑤ 전화위복(轉禍爲福)

(나) 오늘날 수령들은 옛날의 제후와 같아져 궁실과 수레, 의복과 음식, 그리고 좌우의 시종을 거느린 것이 마치 국군의 그것에 비길 만하다. 또 그들은 넉넉히 다른 사람을 경복(慶福)할 만하고, 그들의 형률(刑律)과 위엄은 충분히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하다. 결국 수령들은 오만스럽게 자신을 뽐내고, 태평스럽게 스스로 안일에 빠져서 자신이 목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만다.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켜 찾아가 판결을 구하면 번거로워 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굶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 스스로 죽은 것일 뿐이다.”라고 한다. 곡식과 피륙을 바쳐서 섬기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몽둥이질을 하여 피가 흘러서야 그친다. 날마다 거둬들인 돈꾸러미를 헤아려 낱알이 기록하고, 돈과 피륙을 부고하여 전답과 주택을 장만하여, 권세 있는 재상가에 뇌물을 보내 뒷날의 이익을 기다린다. 이르고서야 백성이 목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어니와, 어찌 이것이 타당한 이치이겠는가?

3. (나)에 나타난 수령의 형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렴주구(苛斂誅求) ② 환골탈태(換骨奪胎)
 - ③ 자중지란(自中之亂)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주림과 피곤에 지친 우리들은 이러한 풍경을 바라다 볼 기력도 없이 주저앉아 있기 마련이었다. 우리 세 동갑 중 가장 치밀하고 슬기있는 것이 상운이다. 치밀이라고 할까 또는 슬기라고나 할까 어떻게 그 날 아침 불안과 절망에 묻혀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은 상운이었다.

“됐어 됐어! 자 이것 봐……. 이것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아…….”

그가 중얼거리며 선창에서 끌어당길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야! 살았다. 살았어…….”

순복이가 이런 소리를 칠 때야 겨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물이다…….

그물……. 내 마음 속에서도 그들모양 생기가 꿈틀거렸다.

매듭과 매듭으로 그물이 짜여 있듯이 새로운 불안이 우리들의 가슴을 얽어 매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물을 친다는 것은 겨우 투망질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큰 그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통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나의 물음에 상운이도 대답을 잃은 채 그물만 들고 뒤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기적을 바라듯 멍청히 하늘을 쳐다 보았다. 하늘도 제 빛을 차지하여 파란 바탕으로 우리들의 머리 위를 뒤덮고 있었다. 그때 나는 확실히 어떤 꿈을 꾸고 있었다 꿈이 아니라 어제 일을 머리속에 그리고 있었다. 머리 위에 빙빙 돌며 우리들의 길 안내를 해 주던 갈매기는 어디로 갔을 까? 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갈매기의 방향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들이 길을 잃은 것은 갈매기의 그림자를 잃은 때부터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갈매기의 울음소리는 비어 있는 하늘 아래 아무데서도 들려 오질 않았다. 나는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상의 기적을 바라는 자신의 어리석은 것 같아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상운이와 순복이가 큰 그물을 갈로 자르고 있는 것을 보았던 까닭이다.

4. 윗글의 '세 동갑'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고립무원(孤立無援) ② 일진일퇴(一進一退)
 - ③ 오리무중(五里霧中) ④ 암중모색(暗中摸索)
 - ⑤ 점입가경(漸入佳境)

“우리집 논이 동성(東城) 흥인문(興仁門)밖에 있는데 한 말을 뿌리면 곡식 석 섬을 먹는다오. ㉠우리 집에 크기가 실로 낙산(落山) 봉우리만한 소가 두 필이라구. 봄 이삼월 토양이 살풀리고 산골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면 두 필 소에 쟁기를 달아 논을 갈고 썬레질을 하여서 물을 싣는다오. 한 필지에 보통 15두(斗)를 파종하는 논이 여러 자리라.”

5. ㉠와 같은 표현을 가리키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 ① 과대망상(誇大妄想) ② 기고만장(氣高萬丈)
 - ③ 구우일모(九牛一毛) ④ 능소능대(能小能大)
 - ⑤ 침소봉대(針小棒大)

디자인(design)의 기본 개념은 기능과 모양새이다. 이 두 요소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사이의 조화를 찾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다. ㉠기능을 중시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비행기와 자동차를 예로 들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디자인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

6. ㉠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 ① 진퇴양난(進退兩難) ② 점입가경(漸入佳境)
- ③ 일진일퇴(一進一退) ④ 갑론을박(甲論乙駁)
- ⑤ 양자택일(兩者擇一)

사회 :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만화를 접하는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여 :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화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만화의 좋은 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설령 만화가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딱히 보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하루 종일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화 대신 권장할 만한 것도 썩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보게는 하되 좋은 만화를 선택하게 하거나, 바르게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2 :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못 하게 막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했지만, 만화는 백해무익하니까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 중의 상책입니다.

여 : 아까부터 만화는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만을 되풀이하시는데 말이 지요. 좋은 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을 들추어보는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쁜 만화에 빠져든다는 것이지만요.

남2 : 아니 만화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혹시 만화 출판사의 직원이라도 되시는 건가요?

사회 : 저, 잠깐만요. 사회자로서 말씀 드리는데요. 만화가 왜 비교육적인지 좀더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2 :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만화가 왜 교육적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보십시오.

여 : 그러죠. 만화는 기본적으로 연상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예요. 만화의 칸과 칸이 이어져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연상 작용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만화에 빠져드는 것도 주인공이나 마음에 드는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연상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만화 속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2 : 아니 그것과 교육이 어떻게 연관됩니까?

여 : 아이들의 사고력 중요한 하나가 연상 능력이라고 하던데요. 그 연상 능력을 키워준다면 당연히 사고력도 좋아질 것 아니겠어요?

남2 : 그건 비현실적인 논리에요. 만화가 나쁘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만화를 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7. 남성 토론자의 태도에 대해 방청객들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렇게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니 토론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
- ② 저런 안하무인(眼下無人)인 사람을 왜 토론자로 부른 거야? 알다가도 모르겠어.
- ③ 아무리 막무가내(莫無可奈)라 해도 정도가 있지. 저래서야 무슨 방안을 찾을 수 있겠어?
- ④ 저럴 바에야 함구무언(緘口無言)하는 게 낫지. 같은 말만 되풀이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 ⑤ 쫓쫓.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 자기 주장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할 바에야 뭐 하러 이 자리에 나왔어?

(가)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 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 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것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부는 이야기다.

8. (가)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조변석개(朝變夕改) ② 청출어람(靑出於藍)
-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④ 개과천선(改過遷善)
- ⑤ 전화위복(轉禍爲福)

내가 조회(朝會)에 사용할 아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 예로부터 법을 세우고 창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때는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저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듣지 아니하기도 한다.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時運)이 불리한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해지고 또 국가에도 별다른 일이 없는 좋은 기회이니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이루도록 하라

9. ㉠과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갑론을박(甲論乙駁) ② 공평무사(公平無私)
- ③ 동문서답(東問西答) ④ 천재일우(千載一遇)
- ⑤ 백년하청(百年河清)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兵火)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처가에 가 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귂 뿐이었다.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갔다.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취 주는데 낭하에서 발자각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씨가 거기 있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았다.

<중략>

이튿날 최씨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개령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골을 거두어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았다.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하인들도 돌아왔다. 이생은 이후로 인간사를 싫어하여 친척이나 귀한 손님의 길흉사에도 가지 않고 늘 최씨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면서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몇 해가 훌쩍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최씨가 이생에게 이르기를,

“세 번씩이나 가약(佳約)을 맺었으나, 세상일이 서로 어긋나기만 합니다. 아직 실컷 즐기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쳐왔군요.”

하고는 오열하였다. 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최씨가 말했다.

“저승길 가는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제(天帝)께서는 침과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죄도 없었기에, 저를 잠시 머물게 하여 낭군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승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략>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최씨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김시습, 『이생규장전』

10. 윗글로 알 수 있는 전체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한자 성어와 연결해 보았다. 한자성어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 불행의 연속→집이 병화에 불타, 부모와 최씨가 죽음→① 설상가상
- 회상→꿈같은 과거(최씨와의 생활) →② 일장춘몽
- 최씨 혼령의 등장
- 행복한 생활→집밖에도 나가지 않음 →③ 결초보은
- 행복한 생활의 파국→이생과 최씨의 인연이 다함 →④ 흥진비래
- 최씨 사라짐 →⑤ 회자정리

모임을 파한 후에 토끼 뒤에 따라가며 한 번 불러, “여보, 토생원(兔生員).”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겹하여 몸집도 작으니 온 산중이 멸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쥐와 여우, 다람쥐도 ‘토끼야, 토끼야.’ 아이 부르듯 이름 불러 어른대접 못 받다가 천만뜻밖 누가 와서 생원이라 존칭하니. 좋아 아주 못 견디어. “게 뉘랄게. 게 뉘랄게, 날 찾는 게 뉘랄게.” 요리 팔팔 조리 팔팔 깡장깡장 뛰어오니, 별주부(鼈主簿)가 의몽하여 토끼의 동정 보자 긴 목을 움뜨리고 가만히 었었으니 토끼가 주부 보고 의심의 매우 하여, “이것이 무엇이고? 쇠똥이 말랐는가. 이 산중에 무슨 슬 깨어진 부등감*이 어찌 저리 묘하게 깨져. 애고, 이것 큰일났다. 사냥 왔던 총(銃)장이 질음승** 끌러 놓고 똥 누러 갔나 보다. 바빠바빠 도망하자.”

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저리 방정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또 한 번 크게 불러, “여보 토생원.” 토끼가 가다 듣고. “누가 나를 또 부르노?” 아장아장 도로 오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까 없던 목줄기가 돌담 틈에 배암같이 슬금 나오거든. 의심 나고 겁이 나서 멀찍이 서서 보며 문자(文字)로 수작 내어, “내가 이 산중에 생어사(生於斯) 장어사(長於斯) 유어사(遊於斯) 노어사(老於斯)하여 몇 해가 되었으되 오늘 처음 보는 터에 나를 어찌 알고 무엇 하러 불렀느냐?” 주부가 대답하되, “유봉(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역낙호(不亦樂乎)가 공자님 말씀인데. 어이 그리 무식하여 처음 본다 팔시하니 인사가 틀렸는데.”

토끼가 들어본즉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옆에 와 썩 앉으며, “뉘라 하시오?” “예, 나는 수궁(水宮)에서 주부 벼슬하여 먹는 자라요.” “산수(山水)가 서로 다른데 산중은 어찌 왔소?” “우리 용왕 장한 가르침 팔천 리를 다스리니 하루에도 수 없이 몸소 일을 하옵는데 신하가 재주 없어 찬양하기 어렵기로, 용왕의 분부 모시어 임금 보좌할 인재를 구하기로, 천하 명산 다니다가 오늘날 모족(毛族) 모임 천만다행 만났기로, 자리를 다 보아도 임금 보필할 인물은 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선생 하나뿐이기로 선생을 모셔 가자 뒤를 따라 왔사오니, 바라건대 선생은 나를 따라 가사이다.”

토끼가 제 인물에 하 감사한 말이어든, 제 소견에도 의심하여, “어떻기에 내 형용이 곰보다도 나을 테요? 범보다 나을 테요?” 주부가 대답하되.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작고 털이 덮여 태양 정기 부족하니 미련하여 못 쓸 테요, 범이 비록 용맹하나 코 짧고 줄기 없어 얼굴 가운데가 움푹하니 단명(短命)하여 못 쓸 테요, 몸이 작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니, 민첩한 저 구변(口辯)이 소진(蘇秦)의 합종(合縱)인지. 가끔가끔 조는 것이 공명(孔明)의 춘수(春睡)런지.** 불수록 모두, 짐승 중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같사오면 출장입상, 부귀공명 따라갈 이 뉘 있을까?”

토끼가 들어 본즉 주부의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낱낱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무던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수궁에 글하는 이 있는지 알아야 할 테어든. 또 물어 “수궁의 조관(朝官) 중에 문장이 몇이 되오?” “문장 조관 있으며는 영덕전(靈德殿) 지을 적에 상량문을 못 지어서 인간 세상까지 나와 구했겠소?” 또 물어, “수궁에 활 썩 키 큰 조관 있소?” “영덕전 상량할 제, 키 큰 조관 가리는데 내가 사랑하였지요. 그리 큰 수궁에서 나만한 키도 없소. 선생이 들어가면 거인이 들어왔다 모두 깜짝 놀라지요.”

토끼가 생각한즉. ‘너른 의사(意思) 좋은 구변 내 속에 흠뻑 들고, 글 잘하고 키 큰 조관 수궁에 없다 하니, 나 지닌 신언서판(身言書判) 놀릴 데가 없건마는 땅에 안주하여 읊기기 어려우니 이 형편에 썩 떠나기가 어렵구나.’

- 신재효, 토별가(兔籠歌) -

- 부등감 :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아궁이의 불을 담아낼 때 부삽대신 쓰는 것.
- • • 질음승 : 화약의 심지
- • • 소진의 합종, 공명의 춘수 : 토끼의 말솜씨와 조는 모습을 각각 소진의 위업과 제갈공명의 여유에 비긴 말.

11. 윗글에 나타난 토끼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라가 칭찬하는 말을 반신반의(半信半疑)하고 있다.
- ② 다른 짐승의 위세를 빌려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다.
- ③ 사냥감이 될까 봐 전전공공(戰戰兢兢)하면서 살고 있다.
- ④ 처음 만난 자라에게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리고 있다
- ⑤ 자신의 용모와 학식에 대해 자격지심(自激之心)을 갖고 있다.

[인물 사이의 관계] 화옥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을, 정씨에게서 차자 화진을, 그리고 오씨에게서 딸 화빙선을 얻었다. 오씨는 일찍 죽었고, 후에 화옥과 정씨가 잇달아 죽었다. 성 부인은 화옥의 누이로, 과부가 되어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하루는 요 부인의 유모 취선이 빙선 소저를 대하여 호느끼며 이르기를, “어르신과 정 부인의 은덕으로 소저와 들췌 공자(公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두 분이 돌아가시매 문득 독수(毒手)에 들었으니 이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죽어 그 일을 아니 보고자 하나이다.” 소저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않더니, 취선이 또 말하기를, “정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거하시던 수선루(壽仙樓)의 시녀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 많으니, 아아, 정 부인이 어찌 남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오?” 하니, 소저 또 대답하지 않더라.

이를 난향이 창밖에서 엿듣고 심씨에게 고한대, 심씨 시비(侍婢)를 시켜 소저를 잡아 와서 꾸짖기를, “네 년이 감히 흉심(凶心)을 품고 진이와 함께 장자(長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친한 중 취선과 모의한 것이 아니냐?” 하니, 소저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심씨 또 화진 공자를 오라 하여 마당에 꿇리고 큰 소리로 죄를 묻기를, “네 이놈 진아, 네가 성 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先親)을 우롱하여 적장자(嫡長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돕지 않아 대사(大事)가 들어졌더니, 도리어 오묘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不測)한 일을 꾀하였도다.” 하니,

공자가 통곡하며 우러러 여짜오되, “사람이 세상에 나매 오륜(五倫)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소자 선친의 혈육으로 모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누이가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눔이 큰 죄

아니고, 후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바라건대 모친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배푸소서.” 소저 여짜오되, “큰집 작은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하나이다.” 하니, 심씨 크게 노하여 쇠채찍을 잡고 소저를 치려 하니, 공자는 방성대곡(放聲大哭)한대, 화춘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심씨 더욱 노하여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 내 치라 하고, 임씨를 꾸짖어, “너도 악한 무리에 들어 나를 없애려 하느냐?” 하더라.

이때 비복(婢僕)들이 황황히 중문 밖에 모여 흐느끼더니, 마침 빙선의 약혼자 유생이 화씨 집으로 오다가 공자가 찢어진 베옷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물으니 공자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 지라. 유생이 큰 변이 있는 줄 알고 화춘을 만나려고 시묘(侍墓)하는 곳에 가니 춘이 없는지라. 동자가 한송정(寒松亭)에서 낮잠이 드셨다고 아뢰니, 유생이 그곳에 올라 보니 과연 대공자(大公子)란 자가 창틀에 다리를 높이 얹고 코를 골며 옷을 풀어 헤치고 자고 있거늘, 유생이 탄식하기를, “쫓쫓, 도적(盜跖)과 유하혜(柳下惠)*가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어찌 오늘 다시 이런 형제를 보는가?” 하고 발로 차서 깨우면서, “그대의 집에 큰 변란이 일어났으니 빨리 가보라.” 하니라.

화춘이 놀라 급히 내당에 들어가니 심씨 바야흐로 계향으로 하여금 빙선 소저를 매질하고 취선은 이미 6, 70대를 맞고 다 죽어 가는지라. 심씨 화춘이 오자 손뼉 치고 필적필적 뛰면서 소저와 취선의 말을 더욱 꾸며서 화춘을 격노케 하니,

화춘이 이르기를, “소저 이미 진이 남매가 이 같은 마음을 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둘이 고모와 합심하였으니 형세로는 지금 당장 제거하지 못하고, 아까 유생이 이미 이 변을 알고는 얼굴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또 고모께서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반드시 크게 꾸짖으실 것이니 이번은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심씨가 땅을 두드리며 발악하기를, “성씨 집 늙은 과부가 내 집에 웅거하여 생각이 음흉하니 반드시 우리 모자를 죽일지라. 내 비록 힘이 모자라나 그 늙은이와 한판 붙어 보리라. 또 유생은 남의 집 자식이라, 어찌 우리 집안의 일을 알리오. 필시 진이 유생에게 알려 나의 부덕함을 누설하였으리니 내가 응당 네 앞에서 결단하리라.” 하니,

화춘이 부득이 화진 공자를 붙들고 와 가혹한 매를 가하니, 공자가 이미 그 모친과 형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한 마디 변명도 없이 20여 장(杖)에 혼절(昏絶)하는지라.

- 조성기,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

*도적:중국 춘추 시대의 유명한 도적.

*유하혜:도적의 형

12. 윗글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화춘은 화진에게 면종복배(面從腹背)하고 있어.
- ② 화진과 빙선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로군.
- ③ 심씨가 화진에게 한 말은 건강부회(牽強附會)로군.
- ④ 형제라 하더라도 화진과 화춘은 천양지차(天壤之差)야.
- ⑤ 빙선은 심씨로 인해 각골지통(刻骨之痛)을 느꼈을 거야.

하지만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도가 곧바로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 혁신 과정에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필킹턴 사 경영진이 플로트 공정의 총개발비를 사전에 알았다면 기술 혁신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필킹턴 경(卿)의 회고는 이를 잘 보여 준다.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의 즉각적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엄청난 투자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술 혁신의 과정은 과도한 비용 지출이나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술 혁신에 도전했던 기업가와 기술자의 노력 덕분에 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기술 혁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 이유는, 그러한 위험 요인들을 예측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만이 앞으로 다가올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13.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온고지신(溫故知新)
- ② 다다익선(多多益善)
- ③ 연목구어(緣木求魚)
-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친구인 겸산(兼山) 유재건(劉在建)이 나와 뜻이 통하여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서 이미 전(傳)에 오른 사람 약간 명을 얻었다. 그리고 전이 없는 사람은 겸산이 직접 전을 지었다. 그리하여 모두 280여 편이 된다.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어 제목을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이라 붙이고 나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다. 내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나라 수천 리 안에 인물이 번성하니 언행이나 시문으로써 후세에 전할 만한 사람이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마는 인멸되어 아는 이가 없게 되었다. 겸산은 흥금이 바다 같아 남의 좋은 점을 즐거워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그물질하듯 끌어 모았다. 또한 그 언행이나 시문 외에도 한 가지 기예, 한 가지 재능이라도 있으면 모두 기록하였다. 그 부지런한 뜻이 어찌 헛되겠는가?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감동하고 분발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니, 어찌 다만 한 사람의 글에 그치겠는가? 세상의 교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이 뜻은 내가 명산(名山)에서 깨달아서 겸산의 글에 기록하여 두는 바이다. 아아! 숨은 빛을 찾아내어 찬연히 세상에 나오게 하였도다.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석실(石室)에 보관한 역사 기록 이외에 태평한 시절 교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책에 있으리라.

- 조희룡, 「이향견문록 서(里鄉見聞錄序)」 -

* 관각:조선 시대에, 홍문관·예문관·규장각을 통틀어 이르던 말.

** 낭묘:조정의 정무(政務)를 돌보던 궁전

14. 윗글로 보아 ‘유재건’과 ‘나’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기지우(知己之友)
- ② 오월동주(吳越同舟)
- ③ 근목자흑(近墨者黑)
-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순망치한(唇亡齒寒)

[중략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흉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컥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해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짓을 하다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 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숙숙 : 두 부인의 아들을 가리킴.

* 투부 : 질투심이 많은 여자. 사씨를 가리킴.

15. 독자의 입장에서 ㉠을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 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곡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은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 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엮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뇨?”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게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온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奠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야복으로 죽장을 짊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전안 :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16.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남1 :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랬나? 애들과 대화 시간을 많이 가져 보라니까.

남2 : 그래도 소용 없어. 요즘 애들하곤 말이 안 통해. 걸핏하면 세대 차이나 들먹이고 당최 말을 들어야지.

남1 :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나. 자네가 이해해야 한다니까.

남2 : 아무리 구식이라도 아버지 말은 들어야지. 저희들 보다 세상 경험이 많은 어른의 말을 존중해야 옳은 거 아닌가? 요즘 애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니까?

남1 : 어허. 그건 그렇지 않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게. 성장 환경이 다르면 알고 있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법일세. 그러니 무조건 애들만 나무랄 게 아니네. 그 애들은 그 애들대로의 세계가 있는 걸세. 그러니 그걸 존중해 주어야지.

남2 :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거꾸로 그 애들이 부모 입장을 좀 생각해 주면 안 되냐? 우린 뭐 우리 세계가 없느냐 말이야.

남2 : 나아, 거 참.

17. 이 대화의 마지막 말, '거 참'에 담긴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 ②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 ③ 고양이 쥐 생각하지.
- ④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 ⑤ 쇠귀에 경 읽기군.

그러나 관찰과 이론의 관계가 항상 그렇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뉴턴의 예를 들어 보자. 뉴턴은 중력과 운동에 관한 이론을 발표하여 과학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 뉴턴의 이론이 모든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천문 학자들은 뉴턴의 이론을 근거로 예측한 달의 운동이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문 학자들에게 달을 관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다시 관찰하도록 충고하였다.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충고를 따라서 그들의 관찰 방법을 수정하였고, 그 결과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천문학자들이야말로 (㉠) 격이라 할 수 있다.

18.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길러 준 개 주인 문
- ② 돈 잃고 친구 잃은
- ③ 다 된 밥에 재 뿌린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
- ⑤ 흑 때려 갔다가 흑 붙인

이 경우 명분이 계층적이라 하여, 이것이 윗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억압적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억압적인 현상은 힘 있는 강자가 명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전통 사회에서는 오히려 위아래의 구성원이 각각 그 역할에 따라 명분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결속을 확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명분을 앞세워 억제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명분론은 기존의 안정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진보적 욕구를 억누르는 보수적 성격도 띠고 있었다. 이 같은 계층적 명분관은 근대로 내려 오면서 신분 제도가 동요하고 붕괴함에 따라 점차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도전과 모험의 진취적 태도를 부정하는 의식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19. ㉡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 ① 제 버릇 개 줄까.
- ② 핑계 없는 무덤 없다.
- ③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 ④ 양반은 얼어 죽어도 껌붙은 안 쥘다.
- 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새로운 낱말을 만들 때에는 몇몇 선학들이 시도했듯이 '매가름, 목'처럼 일상어와 인연을 맺기가 어려운 것을 쓰거나, '췌, 뭍'과 같이 낱말의 한 부분을 따오는 방식보다는 역시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새로운 개념을 붙여넣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언어 대중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

고 생각된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장에서는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불렀다. 이런 말들은 자연적으로 생겨 난 훌륭한 우리 고유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도 실리지 않고 그냥 폐어가 되어 버렸다. 지금은 고향에 가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얼마 전, 고속도로의 옆길을 가리키는 말을 종전대로 써오던 용어인 '노견(路肩)'에서 '갓길'로 바꾸었다는 보도를 듣고, 우리의 언어생활도 이제 바른 방향을 잡아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20. '돌가루'는 사라지고 '갓길'은 살아남은 언어 현상과 관련하여 <보기>와 같은 글을 썼을 때, []에 들어갈 알맞은 속담은?

"[]"라는 속담도 있듯이, 말이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 살아남고 호응을 얻지 못하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외국어도 일단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쓰기 시작하면 순화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보 기>

- 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③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④ 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못 간다.
- ⑤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있다.

"살림은 아직 아빰더러 말으라고 하시지요." 덕기는 그래도 간하여 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싫거든 이리 다오. 너 아니면 말길 사람이 없겠니. 그 대신 내일부터 문전 걸식을 하든 어찌든 나는 모른다."

조부는 이렇게 화는 내면서도 그 열쇠를 다시 넣어 버리려고는 아니하였다.

덕기는 병인을 거슬러서는 아니 되겠기에 추후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직은 순종하리라고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부석부석 옷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수원집이 얼굴이 발개서 들어온다. 이때까지 영창 밑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방 안의 수작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앉았던 것이다.

덕기는 수원집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앞에 놓인 열쇠를 얼른 집어 들고 일어서 버렸다.

"에 아빰, 잠깐 거기 앉게."

수원집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면서 나가려는 덕기를 붙든다. 수원집은 열쇠가 놓였으면 우선 그것부터 집어 놓고서 따지려는 것이어서 덕기가 성큼 넣어 버리는 것을 보니 인제는 절망이다. 영감이 좀더 혼돈 천지로 앓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흔 부르는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라면 머리맡 철케 안의 열쇠를 한 번은 만져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금고 열쇠를 한 번만 만져 볼 틈을 타면 일은 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틈을 탈 새가 없이 이 집에 사자가 다녀 나가기 전에 덕기가 먼저 온 것이다. 덕기의 움이 빨랐던지 사자의 움이 늦었던지? 저희들의 일 꾸밈이 어설 프고 굵튼 탓이었는지? 어쨌든 인제는 만사 휴의(萬事休矣)다!

21. 윗글에서 '수원집'이 처한 상황을 잘 드러낸 것은?

-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네.
- ②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 ③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군.
- ④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 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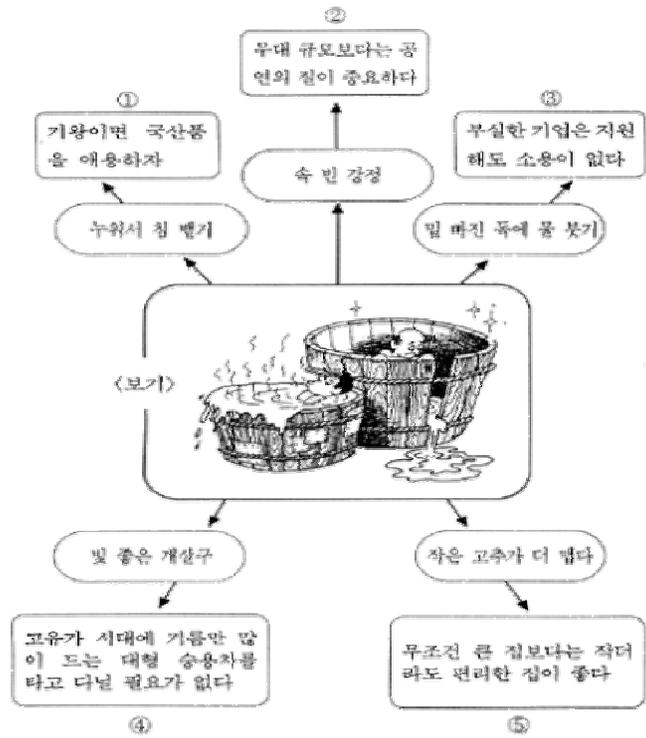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분별한 부의 추구가 한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를 아프리카의 유목민인 새홀 족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인구 증가로 고통 받던 이 부족은 1960년대 중반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려 목초가 풍부해지자 경쟁적으로 가축의 수를 크게

늘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날씨가 건조해지자 그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목초지는 서서히 사막으로 변하여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문화적 적응 방식에 담겨 있는 생태 체계와의 조화라는 원리가 개인적인 욕구 추구로 대체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22. ㉠의 사례에 어울리는 속담은?

- ①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
- ②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③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 ④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 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23. <보기>의 그림을 보고 글을 쓰고자 한다. 단계적으로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유전 공학 기술은 작물 개량 및 증산을 통한 식량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약품 개발, 난치병 치료, 환경 정화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우리의 식탁에도 유전자 변형 식품이 매일 매일 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생물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 예로 ㉠일부 환경 운동 단체에서는, 계초제 저항성 작물이 그것과 유연(有緣) 관계에 있는 잡초와의 교잡에 의해 초강력 잡초를 생성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유전자의 도입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우리 몸 속에 있는 대장균으로 옮겨 가서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는 박테리아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도 유전자 변형 생물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보기도 한다.

24. 윗글처럼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들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 견해를 참조하여 조언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속담은?

- 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②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암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
- 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S#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샀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그럼 뭐 뽀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용기?

영호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 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찌시고 아픈 걸 견디다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났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푹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그건 역설이야.

영호 역설이요?

철호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냐.

영호 천만에요.

- 이범선 원작/나소은·이종기 각색. 오발탄 -

25. S# 74의 상황을 속담을 이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호 : 가난이 병보다 무섭다잖아요. 빨리 이 구차한 삶에서 벗어나야 해요.
- ② 철호 :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뽀족한 수가 있단 말이나?
- ③ 영호 :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지요! 문제는 용기입니다.
- ④ 철호 :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처럼 인생을 살아왔더라면 나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 ⑤ 영호 :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저는 돈을 벌러 넓은 테두리로 나가야 할 거예요.

부장 돌아가신 낙랑 공주에게 미안해서 그러십니까?

호동 …….

부장 공주께서도 어찌 원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자께서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두 분의 행복을 위해서 부탁하신 일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낙랑 공주였으니 어찌 원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왕자님과 이 몸이 대왕의 뜻을 받들어 평화 교섭을 위해서 낙랑을 찾아갔을 때, 제일 반가워한 분이 공주님이었고, 낙랑 왕의 고집 때문에 화평 교섭이 잘 되지 않자 누구보다도 근심하신 분이 공주님이셨지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워서 슬한 사람이 죽느니보다는 자 명고를 찢어서 고구려가 이기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심한 것도 낙랑 공주이시지요. 낙랑 나라가 그런 신묘한 복을 가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지요. 대대로 낙랑 왕의 식구밖에는 모르는 비밀을. 그래서 왕비마마께서도 이 나라에 시집오신 몸이면서도, 그리고 의붓아드님이 정벌군을 이끌고 낙랑으로 떠나게 되어도 입을 다물고 계신 비밀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왕자님을 그렇게 따르시게 된 공주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말씀을 왕자님께 들었을 때처럼 무서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고구려군이 싸움을 벌였더라면 ㉠이었겠지요. 적은 먼저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테니까요.

호동 그 말을 자네한테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군.

26. ㉠에 들어갈 수 있는 속담은?

- 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
- ②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
- ③ 제 피에 제가 넘어가는 격
- ④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
- ⑤ 자는 범 코침 주는 격

(가) 정한담과 최일귀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차게 여쭙오되,
“폐하 즉위하신 후에 은덕이 온 백성에게 미치고 위엄이 온 세상에 진동하여 열국 제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번과 가달이 강포함만 믿고 천명을 거스르니, 신 등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남적을 항복 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천자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근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희 왈,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하시니라.
이때 유 주부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천자 앞에 들어가 엎드려 주왈,
“듣사오니 폐하께옵서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단 말씀이 옳으니이까?”
천자 왈,
“한담의 말이 여차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주부 여쭙오되,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드는 토끼를 놓침이라. 한날 새알이 천 근의 무게를 견디리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 리 사장(沙場)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인들 아니 적악(積惡)이리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기병치 마옵소서.”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차에, 한담과 일귀 일시에 함주하되,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니, 오국 간신과 같은 무리로소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 무리를 대국에 비하고 한날 새알을 폐하에게 비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만고의 역적이라. 신 등은 저어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용이 된 듯하니 유심의 목을 먼저 베고 가달을 치사이다.”
천자가 허락하니,
한림 학사 왕공렬이 유심 죽인단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왈,
“주부 유심은 선험제 개국 공신 유기의 자손이라. 위인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직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에 당연하옵거늘, 그 말을 죄라 하와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 상공을 배향하였으니 춘추로 제사 지낼 때에 무슨 면목으로 뵈오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하 없사옵 것이니, 황상은 생각하와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자 이 말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한담이 여쭙오되,
“유심을 죄하실진대 만 번 죽여도 애석하지 않으나 공신의 후예이오니, 죄목대로 다 못하오나 정배나 하사이다.”

천자
“옳다.”
하시고,
“황성 밖에 멀리 유배 보내라.”

[중간 줄거리]

유심이 유배된 후, 아들 유충렬은 정한담의 박해로 고난을 겪다가 영웅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한담이 황제를 내쫓고 도성을 차지하자, 유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대원수가 된다. 유충렬이 도성을 비운 사이, 천자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 이때 대원수가 금산성에서 적 십만 병을 한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씨 없이 함몰코자 행하더니, 뜻밖에 월색이 희미하며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이히 여겨 말을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紫微星)이 떨어져 변수 가에 비쳤거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왈,

“이게 웬 변이나?”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바삐 올라 산호 채찍을 높이 들어 채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왈,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히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채질을 아니 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의 조화가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몇 천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입자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채로 채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눈 한 번 깜짝이며 황성 밖을 열른 지나 변수 가에 다다르니,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지고 한담은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 하거늘, 원수 이때를 당하매 평생에 있는 기력과 일생에 지를 호통을 힘을 다해 지르고, 천사마도 평생 용맹을 이때에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삼십삼천 어린 조화 이때에 다 부리니, 원수 단는 앞에 귀신인들 아니 울며,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는 듯 혼백인들 아니 울리오. 온몸이 불빛 되어 벽력같이 소리하며 왈,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리에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江神河伯)도 났을 잃어 용납지 못하거늘, 정한담의 혼백인들 아니 가며 간담인들 성할쏘냐. 호통 소리 지나는 곳에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떡떡하여 땀던 말 둘러 타고 도망하여 가려다가, 형산마 거꾸러져 백사장에 떨어지니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거늘, 구만 청천 구름 속에 번개같이 번쩍 하며 한담의 장창 대검이 부서지니,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채로 잡아들고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엎드리니, 이때 천자 백사장에 엎어져서 반생반사 기절하여 누워 있거늘, 원수 붙잡아 앉히고 정신을 진정한 후에 엎드려 주왈,

“소장이 도적을 함몰하고 한담을 사로잡아 말에 달고 왔나이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 ③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 ④ 되로 주고 말로 받았군.
- ⑤ 그 나물에 그 밥이네.

(가) [중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푸루루 날아 나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저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나)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쭙움쭙하니 정욱(程昱)이 여쭙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어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나?”

조조가 목을 막 늘어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곱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중략>

(다) [중모리]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쌓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올라마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鳥)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려 우더니라. 나무 나무 끝끝트리 앉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 귀촉도 귀촉도 붙여귀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준비 노략한때로구나, 소탕 소탕 저 흉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전이 어인 일고, 입빼죽 입빼죽 저 빼죽새. 차칭 영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을 찌로만 낸다,

<중략>

(마)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이 충천한 장수가 나온다. 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리 허리 곱의 팔, 녹포염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는다 모르느냐? 조조는 단지 말고 창 받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등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닫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탕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탕기령 베고, 백송골이 꿩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어갈 제, 피 흘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 '적벽가(赤壁歌)' -

2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병 주고 약 준다.

27. (가)를 고려할 때, (나)의 '천자'의 처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점]

- 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군.
- ② 목마른 놈이 샘 판다더니.